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숙박 중인 중국인 해커 90명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으나, 이는 **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**

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숙박 중인 중국인 해커 90명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된 뒤 미국 정보당국에 넘겨져 조사 중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
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공무원 총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 2개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.

교육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중 88명(5급 승진자 과정 36명, 6급 보직자 과정 52명)과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고,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도 않았습니다.